

# 국 어

## 해설위원 : 기미진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초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 평>

연도	유형	문법/규범	비문학/독해	문학	어휘/한자
2019년		10(▲1)	2(↓1)	5	3
2018년		9	3	5	3

2018 서울시 9급 시험은 작년 서울시 시험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지난 시험에 비해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단의 분석표와 같이 문제 유형별 출제 비율은 문법/규범은 10문제로 1문제가 늘어났으며, 비문학/독해는 1문제가 줄어들어 전형적인 지식형 문제 위주의 서울시 출제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문학과 어휘/한자는 문항수가 변동 없이 동일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공무원 시험의 출제 영역과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출제 포인트가 조금씩 변형되어 당황해서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출문제와 더불어 기출변형문제로 충분히 훈련을 한 학생들의 경우 차분히 생각하면 정답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에 대한 대비는 다음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 문법/규범의 경우에는 이번 서울시 9급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기출 변형 문제로 꾸준히 문제풀이 연습을 합니다. 또한 기본서의 내용을 골고루 그리고 정확하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비문학/독해의 경우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가 2문제 가량 출제되고 있으므로, 매일 2~3문제 정도 꾸준히 풀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 문학의 경우에는 다소 까다로운 지식형 문제가 출제되므로 기존에 출제되었던 작품들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너무 지엽적인 내용을 묻는 경우에는 과감히 찍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 어휘/한자의 경우에는 암기만이 우리의 살길이므로 매일 30분씩(그 이상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할당하여 기출 어휘/한자를 중심으로 암기해 나가도록 합니다. 단순 암기는 머릿속에 남지 않으므로 매번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분량, 암기 방식을 바꿔 가며 여러분의 뇌가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시험 결과는 잊고 담대하게 다음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24.  
기미진 올림

### ★ 기미진 선생님과 소통하기

네이버, 유튜브에서 [기미진 기특한 국어]를 검색하세요.

-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pskorean](http://cafe.naver.com/pskorean)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edu\\_korean\\_edu](http://blog.naver.com/edu_korean_edu)
- 유튜브 채널: [youtu.be/0ORfvstCC6g](http://youtu.be/0ORfvstCC6g)

### 01. 음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리의 강약이나 고저 등은 분절되지 않으므로 음운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음운은 의미를 구별해 주는 최소의 단위이므로 최소 대립쌍을 통해 한 언어의 음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음운은 몇 개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음운은 실제적인 소리라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라고 보아야 한다.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음운의 개념과 음운의 개수

출제 빈도 // ★★

정답 // ①

#### [문제 해설]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 ① [X] 소리의 강약(예 영어)이나 고저(예 중국어), 장단(예 한글) 등은 비록 분절되지 않지만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비분절 음운’에 해당합니다.
- ② [O]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대립쌍인 ‘살’과 ‘쌀’은 ‘ㅅ’과 ‘ㅆ’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 ‘ㅅ’과 ‘ㅆ’은 음운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최소 대립쌍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해서 음운 체계를 수립하면, 음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O] ‘변이음(이음)’은 같은 음소에 포괄되는 몇 개의 구체적인 음이 서로 구별되는 음의 특징을 지니고 있을 때의 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감가’의 두 ‘ㄱ’ 소리는 같은 문자로 표기하나 실제로는 앞의 ‘ㄱ’은 [k], 뒤의 것은 [g]와 같이 서로 다른 음가를 가지는데, 한 음운으로 묶인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음성을 그 음운에 상대하여 변이음이라 이릅니다. 따라서 음운은 몇 개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④ [O] 음운은 실제적인 소리라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ㅂ’을 사람마다 발음하는 물리적인 소리(음성)는 분명히 다른데도 우리는 같은 ‘ㅂ’으로 생각, 즉 관념적으로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 02. 다음 문장 중 어법에 가장 맞는 것은?

- ① 금융 당국은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대출 이자율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 ② 작성 내용의 정정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 ③ 12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 ④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문장 성분의 올바른 호응

출제 빈도 // ★★★★★

정답 // ①

#### [문제 해설]

- ① [O] 어법에 맞는 문장입니다.
- ② [X]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주어 ‘작성 내용의 정정’과 서술어 ‘없는다’가 호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성 내용의 정정이 있거나 ~’와 같이 고쳐 써야 옳습니다.
- ③ [X] 이중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보여지다’는 ‘보다’의 피동형 ‘보이다’에 또 피동사를 만드는 ‘-어지다’가 붙은 ‘보이어지다’가 줄어든 형태입니다. 이중 피동이기에 때문에 ‘보입니다’로 고쳐야 합니다. 또한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띄어쓰기의 단순화를 위해 의미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시 한번’으로 통일하여 띄어쓰기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다시 한번’ 구성에서는 항상 ‘다시 한번’으로 ‘한번’을 붙여 써야 합니다.
- ④ [X] 뒤 절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의 주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와 같이 고쳐 써야 합니다.

### 03. 속담과 한자성어의 뜻이 가장 비슷한 것은?

- 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 순망치한(唇亡齒寒)
- ②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 하로동선(夏爐冬扇)
- ③ 우물 안의 개구리 - 하충의빙(夏蟲疑氷)
- ④ 굵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 설중송백(雪中松柏)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속담 + 한자 성어

출제 빈도 // ★★★★★

정답 // ③

#### [문제 해설]

- ① [X]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요긴한 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럭저럭 살아 나갈 수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唇亡齒寒(입술쏠, 망할 망, 이 치, 찰 한)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뜻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 ② [X]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평소에 무척 흔하던 것도 막상 필요하여 쓰려고 하면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 夏爐冬扇(여름 하, 화로 로, 겨울 동, 부채 선)은 여름의 화로(火爐)와 겨울의 부채라는 뜻으로, 아무 소용 없는 말이나 재주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뜻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 ③ [O] '우물 안의 개구리'는 넓은 세상을 알지 못하고 저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을 비꼬는 말입니다. 夏蟲疑氷(하충의빙)은 여름의 벌레는 얼음을 안 믿는다는 뜻으로, 견식(見識)이 좁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뜻이 비슷합니다.
- ④ [X]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자손이 빈한해지면 선산의 나무까지 팔아 버리나 줄기가 굽어 쓸모없는 것은 그대로 남게 된다는 뜻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도리어 제구실을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雪中松柏(눈 설, 가운데 중, 소나무 송, 측백 백)은 눈 속의 송백이라는 뜻으로, 소나무와 잣나무는 눈 속에서도 그 색이 변치 않는다 하여, 절조가 굳은 사람을 비유해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뜻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04. <보기>는 복수 표준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른 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 ① 가는허리 / 잔허리  
 ② 고깃간 / 정육간  
 ③ 관계없다 / 상관없다  
 ④ 기세부리다 / 기세피우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표준어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 ① [O] '가는허리 / 잔허리'는 '잘록 들어간, 허리의 뒷부분'을 의미하는 복수 표준어입니다.  
 ② [X] '고깃간'의 복수 표준어는 '푼춧간'입니다.  
 ③ [O] '관계없다 / 상관없다'는 복수 표준어입니다.  
 ④ [O] '기세부리다 / 기세피우다'는 복수 표준어입니다.

05. <보기>의 로마자 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오죽헌 Ojukeon                      ㄴ. 김복남(인명) Kim Bok-nam  
 ㄷ. 선릉 Sunneung                      ㄹ. 합덕 Hapdeok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로마자 표기법」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ㄱ [X]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어야 하므로, '오죽헌'은 'Ojukcheon'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ㄴ [O]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씁니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Kim Bok-nam) 또한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Bongnam'으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에 따라 쓸 수는 있으므로 'Gim' 또는 'Kim'으로 쓸 수 있습니다.
- ㄷ [X]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하는 유음화에 따라 선릉은 [설릉]이라고 발음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로마자 표기를 하면, 'ㄹ'은 'll'로 적습니다. 그러므로 'Seolleung'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 ㄹ [O] '합덕'은 [합땡]으로 발음되지만, 된소리되기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Hapdeok'을 적습니다.
- 따라서 정답은 ③ ㄴ, ㄹ입니다.

06.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當奈公何

- ① 황조가와 더불어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서사시다.  
 ② 한시와 함께 번역한 시가가 따로 전한다.  
 ③ '물'의 상징적 의미를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④ 몇 번을 죽어도 충성의 마음이 변치 않음을 노래하고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고대 시가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고조선 시대의 고대 가요 <공무도하가>입니다.
- ① [X] '황조가'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서정시입니다.
- ② [X] 구전되다가 4언 4구체의 한역 시가로만 전한다.
- ③ [O] '물'은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별, 죽음'을 상징하며 이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④ [X] 임을 여인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작품 분석]

백수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갈래: 고대 가요  
 연대: 고대(고조선)  
 주제: 임을 여인 슬픔, 물에 빠져 죽은 남편을 애도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함  
 성격: 직서법으로 직경적(直情的)이고, 비극적  
 특징: 배경 설화가 존재, 4언 4구체의 한역 시가  
 어조: 여성적 화자의 탄식과 원망과 애절한 울부짚음과 체념적인 어조  
 의의: ① '황조가'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서정 가요  
       ②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시기의 과도기 작품

[현대어 풀이]

公無渡河(공무도하) 그대여, 물에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공경도하) 그대 결국 물에 건너시네  
 墮河而死(타하이사)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當奈公何(당내공하) 가신 임을 어이할고.

07. <보기>의 두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가) 임 그린 상사몽이 ㉠ 실솔의 낮이 되어  
 가을철 깊은 밤에 임의 방에 들었다가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 불까 하노라.  
 (나) 이 몸이 죽어져서 ㉡ 접동새 낮이 되어  
 이화 핀 가지 속잎에 싸였다가  
 밤중만 살아서 우리 임의 귀에 들리리라.

- ① ㉠은 귀뚜라미를 뜻한다.  
 ② (가), (나)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③ ㉡은 울음소리가 돌아갈 귀(歸), 촉나라 촉(蜀), '귀촉 귀촉'으로 들려 귀촉도라고도 한다.  
 ④ (가), (나)의 작가는 모두 미상이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시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가)는 박효관의 시조에 애절한 마음이 귀뚜라미의 낮이 되어 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작자 미상의 고려 때 시조입니다.
- ① [O] ㉠ '실솔'은 귀뚜라미의 한자말입니다.

- ② [O] (가), (나)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 ③ [O] ㉠ '검둥새'는 울음소리가 돌아갈 귀(歸), 촉나라 촉(蜀), '귀촉 귀촉'으로 들려 귀촉도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검둥새'는 '두견'의 방언이며, '두견'은 '귀촉도(歸蜀道)'입니다.
- ※ 검둥새 전설: 촉(蜀)나라 망제(望帝)가 산 속에 귀암살이를 하는데 한 번 울기 시작하면 피를 토하고 쓰러질 때까지 울었다. 망제의 한(恨)과 원(怨)이 검둥새가 되었다.
- ※ 검둥새 설화: 옛날 진두강(津頭江)가에 10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계모)를 들였다. 계모는 포악하여 전설 사지들을 학대했다. 소녀는 나이가 들어 바친(嬖臣)의 어느 도령과 혼약을 맺었다. 부친 악혼과 집에서 소녀에게 많은 예물을 보내 왔는데 이를 시기한 계모가 소녀를 농속에 가두고 불을 질렀다. 불탄 재속에서 한 마리 검둥새가 날아 올랐다. 이를 안 관가에서 계모를 잡았다 같은 방법으로 계모를 죽였는데, 그 때는 까마귀가 날아 올랐다. 검둥새가 된 소녀는 계모가 무서워 남들이 다 자는 야삼경에만 아홉 동생이 자는 창가에 다 슬피 울었다고 한다.
- ④ [X] (가)의 작가는 조선 고종 때 가객 박호관입니다. (나)의 작가는 알 수 없습니다.

08. 밑줄 친 단어의 형태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멀리서 보기와 달리 산이 가팔라서 여러 번 쉬었다.
- ② 예산이 100만 원 이상 모자라서 구입을 포기해야 했다.
- ③ 영혼을 불살라서 이론 깨달음이니 더욱 소중하다.
- ④ 말이며 행동이 모두 올발라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용언의 활용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 ① [O] ‘가파르다’는 모음 어미 ‘-아서’ 앞에서 어간 끝음절 ‘ㄹ’가 ‘ㄹㄹ’로 바뀌는 ‘ㄹㄹ’ 불규칙 용언입니다.
- ② [X] ‘모자라다’는 모음 어미 ‘-아서’와 결합하면 ‘모자라서’와 같이 활용합니다. ‘모자라다’는 없는 단어이므로 ‘모잘라서’와 같은 활용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③ [O] ‘불사르다’는 모음 어미 ‘-아서’ 앞에서 어간 끝음절 ‘ㄹ’가 ‘ㄹㄹ’로 바뀌는 ‘ㄹㄹ’ 불규칙 용언입니다.
- ④ [O] ‘올바르다’는 모음 어미 ‘-아서’ 앞에서 어간 끝음절 ‘ㄹ’가 ‘ㄹㄹ’로 바뀌는 ‘ㄹㄹ’ 불규칙 용언입니다.

09. 한자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장(延長), ‘하산(下山)’은 ‘서술어+부사어’의 구조이다.
- ② ‘인간(人間), ‘한국인(韓國人)’의 ‘인’은 모두 어근이다.
- ③ ‘우정(友情), ‘대문(大門)’의 구성 성분은 비자립적 어근과 단어이다.
- ④ ‘시시각각(時時刻刻), ‘명명백백(明明白白)’은 고유어의 반복합성어 구성 방식과 다르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단어의 형성 방법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 ① [O] ‘연장(延長)’은 ‘길게 늘이다’, ‘하산(下山)’은 ‘산에서 내려오다’의 ‘서술어+부사어’의 구조입니다.
- ② [X] ‘인간(人間)’은 ‘어근+어근’의 합성어로 보거나 단어로 봅니다. ‘한국인(韓國人)’의 ‘-인’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입니다.
- ③ [O] [O] ‘우정(友情)’은 ‘친구의 정’, ‘대문(大門)’은 ‘큰 문’이므로, ‘관형어+명사’의 구조로서 구성 성분은 비자립적 어근과 단어입니다.  
※ ‘비자립적 어근’은 ‘불구 어근’이라고도 불리며, 자립해서 쓸 수 없는 어근을 말한다. ‘장산곶, 배꼽, 미나리깡, 몸살’의 ‘곶, 곱, 깡, 살’ 등은 자립적이지 않으나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않고 어휘적 의미가 강하므로 비자립적 어근으로 본다.
- ④ [O] [O] ‘시시각각(時時刻刻)’, ‘명명백백(明明白白)’은 ‘시각(時刻)’과 ‘명백(明白)’의 반복 구조입니다. 그러나 고유어는 ‘찰랑찰랑’, ‘출렁출렁’과 같은 구성을 가지므로 만약 고유어라면 ‘시각시각’, ‘명백명백’과 같은 방식으로 합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자어는 어순을 달리하여 고유어와 다른 구성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0.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 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 ② 데칸 고원은 인도 중부와 남부에 위치한 고원이다.
- ③ 못 본 사이에 키가 전봇대 만큼 자랐구나!
- ④ 이번 행사에서는 쓸모 있는 주머니만들기를 하였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띄어쓰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O] '같은 길이의 단위를 나타내는 외근 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물속'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씁니다.
- ② [X] '데칸고원은 붙여 써야 합니다. 이는 2017.06.01. '외래어 표기법' 개정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해, 섬, 강, 산, 산맥, 고원, 인, 족, 어……'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고유어나 한자어에 붙을 때에는 붙여 써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관련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해, 섬, 강, 산, 산맥, 고원, 인, 족, 어……' 등의 앞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앞말에 붙여 쓰게 되었습니다.
- ③ [X] '만큼'은 체언 뒤에 쓰이면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 ④ [X]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머니 만들기' 또는 '주머니만들기'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사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두 개 이상의 체언이 접속 조사로 연결되는 구조일 때에는 붙여 쓰기 않습니다. 따라서 '썰도 있는 주머니 만들기'와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예 띄어 씀: 간단한 도면 그리기, 바닷말과 물고기 기르기)

11.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떠내려갔다                      ② 따라 버렸다  
③ 빌어먹었다                    ④ 여쭙어봤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형태소의 개념과 유형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O] ‘뜨-+어+내리-+어+가+았+다’로 7개입니다.
- ② [X] ‘따르-+아+버리-+었+다’로 5개입니다.
- ③ [X] ‘빌-+어+먹-+었+다’로 5개입니다.
- ④ [X] ‘여쭙-+어+보+았+다’로 5개입니다.

12.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 아닌 것은?

- ① 묻다(問)                      ② 덥다(暑)  
③ 낫다(愈)                    ④ 놀다(遊)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용언의 활용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O] ‘문다’는 ‘물어와 같이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받침의 ‘ㄷ’이 ‘ㄹ’로 바뀌는 ‘ㄷ’ 불규칙 활용을 합니다.
- ② [O] ‘덥다’는 ‘더워와 같이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받침의 ‘ㅂ’이 ‘오’ 또는 ‘우’로 바뀌는 ‘ㅂ’ 불규칙 활용을 합니다.
- ③ [O] ‘넋다’는 ‘나야와 같이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받침의 ‘ㅅ’이 탈락하는 ‘ㅅ’ 불규칙 활용을 합니다.
- ④ [X] ‘놀다’는 ‘노니, 놀니다’와 같이 어간의 ‘ㄹ’ 받침이 ‘ㄴ, -(으)ㄹ, ㅂ, ㅅ, -(으)오’ 앞에서 탈락한다. ‘ㄹ’ 탈락은 규칙 활용입니다.

## 13. &lt;보기&gt;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lt;보 기&gt;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齊(이제)를 恨(한)하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채미)도 烹(조)는 것가.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그 뉘 싸해 낫드니.

- ① 시인은 사육신의 한 명이다.
- ② 중의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 ④ 단종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시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 [문제 해설]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왕조의 정당성을 비판하며 변함없는 절의와 지조를 표현한 성삼문의 시조 <수양산 바라보며>입니다.

- ① [O] 시인은 사육신의 한 명입니다.
- ② [O] 중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양산'은 '백이와 숙제가 은둔한 중국의 산' 또는 '수양대군(세조)'을 의미합니다. '채미'는 '고사리를 캐어 먹음' 또는 '수양대군이 주는 녹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뉘'는 '주나라의 무왕' 또는 '수양대군(세조)'을 의미합니다.
- ③ [O] 중국의 백이와 숙제의 고사(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멸하자 신하가 천자를 토벌한다고 반대하며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서우양산에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 ④ [X] 단종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조의 정당성을 비판하며 변함없는 절의와 지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 [현대어 풀이]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 그들을 한하노라(원망하노라).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먹었다는 것인가?  
비록 푸새귀일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 생겨난 것인가?(주나라의 땅에 난 것이 아니던가?)

## 14. &lt;보기&gt;의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lt;보 기&gt;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습가.  
이어라 이어라  
漁어처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至지국憲총 至지국憲총 於어思스臥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갓 고기 뛰노느다.

년넝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靑靑蓑笠笠은 싸 잇노라, 綠綠蓑衣衣의 가져오나.  
至지국憲총 至지국憲총 於어思스臥와  
無무心심흔 白백鷗구는 내 좃느가 제 좃느가.

- 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③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④ 후렴구를 제외하면 전형적인 3장 6구의 시조 형식을 갖추고 있다.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시조  
출제 빈도 // ★★★★★  
정답 // ①

## [문제 해설]

윤선도의 연시조 <어부사시사>입니다.

- ① [X]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계절의 자연 경치를 즐기는 강호의 한경,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여유와 어부의 흥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 ② [O] '우는 거시 벽구기가'에서 청각적 이미지, '프른 거시 버들습가'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③ [O] 대구법은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 지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법을 말합니다.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습가.', '년넝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등에서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④ [O] 후렴구 '이어라 이어라', '至지국憲총 至지국憲총 於어思스臥와'를 제외하면 전형적인 3장 6구의 시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 [작품 분석]

윤선도, <어부사시사>

갈래: 평시조, 연시조(전 40수), 정형시

연대: 조선 후기(조선 효종)

주제: 사계절의 자연 경치를 즐기는 강호의 한경,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여유와 어부의 흥취

여기서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업으로 하는 진짜 어부가 아니면서 어부처럼 지내는 사람으로, 숙세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결국 '어부사시사'의 '어부'는 정계 또는 세상의 속사를 잊어버리고 강호에 묻혀 지내며 시를 읊고 술잔을 기울이던 사대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격: 강호한경, 자연친화적

특징: ① 고려 시대의 <어부가(漁父歌)>, 조선 전기 이현보의 <어부가>를 거쳐 형성됨  
② 우리말이 가질 수 있는 율조를 최대한 살림

## [현대어 풀이]

<춘사 4>

우는 것이 빠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습인가?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배가 손살같이 나아가니) 어촌의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한다.

찌거덩 찌거덩 어야차!

맑고도 깊은 소에서 온갓 고기가 뛰노는다.

<하사 2>

연 앞에 밥을 싸 두고 반찬은 장만하지 마라.

달을 들어라, 달을 들어라.

대삿갓을 쓰고 있다. 도롱이를 가져 왔느냐?

찌거덩 찌거덩 어야차!

무심한 갈매기는 내가 저를 따르는가? 제가 나를 따르는가?

## 15. &lt;보기&gt;와 가장 관련이 없는 고사성어는?

## &lt;보 기&gt;

섞 실은 천리마(千里馬)를 알아 볼 이 뉘 있으리  
십년(十年) 역상(轡上)에 속절없이 다 늙도다  
어디서 살진 쇠양마(馬)는 외용지용 하느니

- ① 髀肉之嘆
- ② 招搖過市
- ③ 不識泰山
- ④ 麥秀之嘆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한사 성어  
출제 빈도 // ★★★★★  
정답 // ④

## [문제 해설]

조선조 21대 영조 때의 가인 김천택의 시조입니다.

- ① [O] 髀肉之嘆(넓적다리 비, 고기 육, 갈 지, 탄식할 탄)은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 ② [O] 招搖過市(부를 초, 흔들 요, 지날 과, 저자 시)는 남의 이목을 끌도록 요란스럽게 하며 저자거리를 지나간다는 뜻으로, 허풍을 떨며 요란하게 사람의 이목을 끄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 ③ [O] 不識泰山(아니 불, 알 식, 클 태, 외 산)은 태산을 모른다는 뜻으로, 큰 인물의 참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X] 麥秀之嘆(보리 맥, 빼어날 수, 갈 지, 탄식할 탄)은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 [현대어 풀이]

섞나무 실은 천리마를 알아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십 년 동안이나 마구안에서 속절없이 다 늙어 가는구나.

어디서 살쥔 둔한 말이 잘난체 한단(으양으양 울고 다닌단) 말인가.

## 16. 어휘의 뜻풀이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멸차다: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매우 많고 풍족하다
- ②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 ③ 안다미로: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 ④ 툇아보다: 살살이 훑어 가며 살피다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기타 기출 어휘

출제 빈도 // ★★★★★

정답 // ③

## [문제 해설]

③ [X] '안다미로'는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를 의미합니다.

## 17. &lt;보기&gt;는 「훈민정음언해」의 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lt;보 기&gt;

나랏 말쌈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스뚝디 아니홀췌 이런 전초  
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홀 배 이셔도 모츨내 제 췌들 시러 퍼디 몬홀  
노미 하나라 내 이롤 爲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덟字를 밍그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便安키 호고져 홀 췌르미니라

- ① <보기>는 한 문장이다.
- ② 밑줄 친 '시러'는 한자 '載'에 해당한다.
- ③ 밑줄 친 '내'는 세종대왕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④ 'ㅏ'와 'ㅑ'는 발음이 같지만 단어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했다.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요 고전 문헌

출제 빈도 // ★★

정답 // ③

## [문제 해설]

- ① [X] <보기>는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② [X] '시러'는 한자 '能(능할 능)'에 해당합니다. ※ 載(싣을 재)
- ③ [O] 밑줄 친 '내'는 세종대왕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 ④ [X] 'ㅏ'와 'ㅑ'는 발음이 다릅니다. 'ㅑ'는 'ㅏ'와 'ㅓ'의 중간 발음입니다.

## [현대어 풀이]

우리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  
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  
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 여덟 글자를 만드  
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18. &lt;보기&gt;의 밑줄 친 시어 가운데 내적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은?

## &lt;보 기&gt;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디치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백한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닳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 ① 차고 슬픈 것                      ② 새까만 밤
- ③ 물먹은 별                        ④ 닳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시어의 의미

출제 빈도 // ★★★★★

정답 // ②

## [문제 해설]

경지용의 <유리창>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한 시로서, '산(山)  
새'는 죽은 아들을 의미합니다.

- ①, ③, ④ [O] '차고 슬픈 것', '물먹은 별', '닳'은 모두 죽은 아들을 의미합니다.
- ② [X] '새까만 밤'은 시간적 배경을 의미합니다.

## [작품 분석]

경지용, &lt;유리창&gt;

연대: 1930년대

주제: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비애

성격: 주지적, 회화적, 감각적, 묘사적

특징: ① 선명한 이미지의 사용

② 감각적인 시어의 선택

19. <보기>의 지문은 설명문의 일종이다. 두괄식 설명문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논  
리적 전개에 가장 부합하게 배열한 것은?

## &lt;보 기&gt;

- ㉠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언어 단위를 어절이라 한다. 띄어 쓴 문장  
성분을 각각 어절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어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은 문장 구성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 ㉡ 문장은 인간의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담을 수 있는 언어 단위이  
다. 문장은 일정한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도 있다.
- ㉢ 띄어 쓴 어절이 몇 개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남자가 아주 멋지다.'라는 문장에서 '그 남자가'와 '아주 멋지다'는  
각각 두 어절로 이루어져서 주어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 ㉣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룬 것을 구(句)라고  
한다.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구와 구별되지만, 독  
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장과 구별된다.

① ㉠-㉡-㉢-㉣

② ㉠-㉢-㉣-㉡

③ ㉡-㉠-㉣-㉢

④ ㉡-㉣-㉠-㉢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글의 전개 순서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 [문제 해설]

'두괄식 구성'은 글의 첫머리에 중심 내용이 오는 산문 구성 방식을 말합니다.

- ③ [X] 선지는 ㉠과 ㉡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괄식 구성이므로 두 문단의 논리  
적 순서를 고려할 때 '문장은 인간의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담을 수 있는 언어 단  
위이다'라는 내용이 '띄어 쓴 문장 성분을 각각 어절이라고 한다'라는 내용보다  
더 일반적이고 중심적이므로 주제 문단은 ㉡이 적절합니다. 또한 ㉠ 뒤에는 '띄  
어 쓴 문장 성분을 각각 어절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이 오고, 그 후에 '띄어  
쓴 어절이 몇 개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된다'라고 하며 ㉠을 부연 설명하는  
㉣이 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  
장 성분을 이룬 것을 구(句)라고 한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20. &lt;보기&gt;의 설명에 활용된 방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 &lt;보 기&gt;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희도 자신이 명덕(明德)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민(新民)이다.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古本) 「대학」의 친민(親民)을 신민(新民)으로 고쳤다. '친(親)'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孝), 제(弟), 자(慈)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 해석한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애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친민이다.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제, 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① 시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나뉜다.
- ②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 ③ 언어는 사고를 반영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예로 무지개 색깔을 가리키는 7가지 단어에 의지하여 무지개 색깔도 7가지라 판단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 ④ 곤충의 머리에는 겹눈과 홑눈, 더듬이 따위의 감각 기관과 입이 있고, 가슴에는 2쌍의 날개와 3쌍의 다리가 있으며, 배에는 끝에 생식기와 꼬리털이 있다.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글의 진술 방식 및 전개 방식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 [문제 해설]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주제문에 대한 예시로 ‘주희’와 ‘정약용’을 들고 있습니다.

- ① [X] 어떤 대상들을 특성(기준)에 근거해서 구분 짓는 방법 중 큰 항목(상위 항목)에서 작은 항목(하위 항목)으로 나누는 ‘구분의 설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② [X]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에서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역설’이 사용되었습니다.
- ③ [O] 일반적인 원리, 법칙, 진술을 세부적인 예로 구체화하는 진술 방식인 ‘예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④ [X] 어떤 복잡한 것(사물, 개념)을 단순한 요소나 부분(구성 요소)들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인 ‘분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